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Let's Win in the Name of Jesus

에베소서 6: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2월 19일 설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교회 대항 시합

제가 어렸을 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끼리 친선체육대회를 자주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 달리기도 하고 축구나 배구 같은 구기 시합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끼리 모이니까 학생 같으면 다른 교회 다니는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어른 같으면 직장 동료도 교회별로 나누어져 시합을 하고 그랬습니다.

운동시합을 하면 선수는 시합을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응원을 하지요. 교회마다 좀 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 인도를 하면 일사불란 뜻을 맞추어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응원 하면 노래 아납니까? 응원가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뭘지 한 장로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기자고 하는 게 시합인데 교회 대항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하는 응원가가 단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일절이 끝난 다음 이절은 대개 건너뛸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응원가 가사로는 안 좋거든요. 그런 다음 삼절로 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가 쫓기다니, 누가 마귀입니까? 응원가니까, 싸움에서 이기자 하는 노래니까, 당연이 상대편 교회가 마귀가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마귀가 되지요. 왜요? 상대편 교회도 똑같은 응원가를 부르거든요. 예수 잘 믿는 두 교회가 괜히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쫓지에 다같이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야 그렇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체육대회 현장에 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서 목사고 장로고 없습니다. 시합을 하면 다들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어 가지고 심판한테 항의도 하고 가끔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선수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친선체육대회, 선을 피하는 체육대회인데 결론은 싸움으로, 못 이긴 팀은 분노와 욕설로 끝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 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그런 잘못된 행사를 왜 해마다 계속했는지, 그렇게 싸우는데도 목사나 장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제가 목사가 된 지금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겨루는 문화

스포츠는 참 멋진 문화입니다. 운동이지요. 건강을 위해 하기도 하고 또 재미를 위해 하기도 합니다. 재미를 위해 하는 경우는 주로 경쟁을 벌입니다. 프로 스포츠가 다 그런 거지요. 재미를 위해 하는 시합 가운데는 월드컵처럼 한 종목의 대표가 모여 경쟁하는 것도 있고 올림픽처럼 여러 종목의 대표가 모여 나라별로 경쟁을 벌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경쟁이 있고 어느 것이든 목표는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제 나라 팀이 잘 하면 감독이나 선수가 포상도 많이 받고 못 하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학생 때부터 운동경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마다 종목별로 선수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다른 학교 팀과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제 아이들도 축구부랑 배구부에 들어 다른 학교 팀하고 시합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스포츠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우선 아이들 체력에 도움이 되고 또 한창 때 잡념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건전한 경쟁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경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학생 때 스포츠를 통해 그 경쟁을 미리 훈련하고 준비한다는 거지요.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은 첫째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또 시합에 가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것도 배우고, 또 이기든 지든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또 단체 스포츠를 할 경우에는 팀 전체가 서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이기고 지는 걸 되풀이하는 가운데 한 번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배웁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배우는 게 더 있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구나, 반칙도 심판 모르게 하니깐 실력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판이 저쪽 편이면 못 이기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겠지요.

경쟁은 현실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경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존방식입니다.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게 경쟁의 시작이지요.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협조하는 걸 배우기 전에 경쟁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학교 가기 전부터 헤드 스타트니 뭐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남보다 앞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잘 배우고 못 배운 걸 평가를 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무슨 대외 시험 같은 데 출전하기도 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다 치르는 시험도 칩니다. 대학 갈 때도 경쟁, 취직을 할 때도 경쟁, 일을 할 때도 경쟁입니다. 그러니 스포츠를 통해 건전하게 겨루는 법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준비한다는 건 참 괜찮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기려는 욕심

그런데 사회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건강에 좋으니 직접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직접 안 하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생존경쟁을 날마다 하면서 무슨 경쟁이 또 필요한지 스포츠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라는 게 생겼습니다. 남 보라고 운동을 해 먹고사는 직업입니다. 보는 사람은 재미로 봅니다. 재미로 하는 스포츠가 특히 많은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국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고 즐기는 것만 해도 단체 경기로 농구, 야구, 풋볼, 아이스하키, 축구, 이런 게 있고, 개인 경기로는 테니스, 골프, 복싱, 경마, 자동차경주 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 스포츠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경기는 남이 하지만 보는 나도 거기 몰입이 되어 같이 경쟁을 벌입니다. 좋아하는 팀이 없으면 스포츠도 별 재미가 없지만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내가 팬이 되어 직접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팬끼리 맞붙는 난투극이 왜 일어납니까? 경쟁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경쟁심, 겨루어 이기고 싶은 마음, 이게 스포츠를 즐기는 마음의 바탕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경쟁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 스포츠를 보면서 또 경쟁하는 이유는 이걸 내가 직접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은 없고 그러면서도 내 속에 있는 경쟁심리는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남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나 개인의 인생과 온 우주의 역사의 바탕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성이 나 얼굴이 별개였습니다.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도 기분 나쁘지만 동생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히브리서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경쟁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성이 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경쟁심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부모한테서 왔지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을 쥐고 흔들려 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돌밖에 없던 시절인데 거기서 이미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이지요. 죄 짓기 전에는 둘이 하나였는데 죄가 둘을 갈라놓았는데 갈라진 대표적인 증상이 경쟁이었습니다. 이 경쟁이 죄와 이어져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쫓을 때 뭐라 했습니까?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싶은 마음, 이게 이미 죄 아닙니까? 겨루어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인간 죄악의 뿌리입니다.

죄 있는 세상

죄가 덮고 있는 세상은 곧 겨루는 세상, 서로 싸우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악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교만한 마음과 이웃과 겨루어 더 나아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겨루는 마음 자체가 그럼 잘못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알기 전에는 겨룰 대상도 없었고 겨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겨루는 마음 자체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잘 이용하라 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9:25). 당시 운동경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절제가 필요한데 세상의 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상을 얻으려 하는 우리가 말해 무엇 하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경쟁해 이기려는 마음보다 노력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태도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성취지요. 그런데 그런 성취를 확인하는 방법이 겨루는 방법입니다. 도를 닦는 거야 나 혼자 득도하면 그만이지만 인생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한 덕에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암을 이기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왜요? 먼저 발견하는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요.

이기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뜻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긴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긴 그 자체가 경쟁이라는 사람의 방법에 따른 것이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실수도 있고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긴 반면 진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겠지요.

두 가지 싸움

요즘 스포츠에서 신앙 문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시겠지요? 팀 티보우 때문입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눈 밑에 붙이는 가리개에다 성경구절을 써 붙이고 점수를 낼 때마다 기도를 하고 해서 이미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프로 풋볼에서 잘 해 가지고 전에 못 하던 팀을 강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팀 티보우가 기도하는 자세를 흉내 낸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풋볼 운영자들은 신이 났지요. 티보우 덕분에 풋볼이 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시청률은 곧 돈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티보우가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포츠 별로 안 보는 저도 티보우 경기는 몇 번 보았습니다. 괜히 티보우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티보우가 경기를 할 때마다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기는 건 성취입니다. 스포츠에서 이루는 성취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 그 팀이 이기면 좋겠다 싶지요? 사람이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경쟁심의 밑바탕에는 죄의 본성이 버티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내가 이기면 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기고 지는 방식 자체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겼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너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굳이 기도를 하려거든 티보우 팀이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티보우가 풋볼 경기를 통한 영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티보우가 속한 팀을 위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이 마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풋볼 시즌이 끝이 나 요즘은 티보우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모양인데 요즘 인기를 끄는 크리스천 운동선수가 또 있지요? 제러미 린이라는 농구선수입니다. 최근 못하던 뉴욕 닉스가 린 하나 때문에 강팀이 다 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떠들썩하고 특히 부모가 타이완 사람이다 보니 중국대륙까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린은 티보우하고 좀 다릅니다. 티보우는 드러내고 나 예수쟁이요 하는데 린은 조용합니다. 린도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티보우 못지않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영의 싸움

티보우를 위해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습지요.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를 위해 기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티보우를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소문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티보우 한 사람이 잘못되면 주님 영광을 크게 가릴 수 있습니다. 풋볼 실력이 줄거나 다치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티보우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다시 말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시작해, 나랑 싸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선수든 스태프든 방송 관련 사람이든 모두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도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일까지 포함해 모든 게 주님 영광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과 직결되게 마련입니다. 린이 인기가 올라가면서 신문에 나오는 글을 보니까 린의 인기가 하나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린이 닉스에 오면서부터 팀이 달라졌답니다. 개인은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경기를 해 이기고 있답니다. 단체 스포츠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 덕분에 서로 돕고 협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닉스가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면서 린이 닉스를 다시 그런 팀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도 있던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이름 난 어떤 축구 선수는 거만하고 욕도 잘 하고 인간관계도 나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저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많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수 믿는 선수들이 모여 월드컵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이 선수가 참석한 걸 보고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교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차범근 아시지요? 오래 전 독일 축구장을 십일 년 동안 누비고 다녔던 스타입니다. 백에서 두

개 모자라는 골을 기록했는데 그것보다 더 멋진 기록이 있습니다. 십일 년 동안 옐로카드를 꼭 하나 받았습니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력 좋아야지요. 골도 넣고 홈런도 치고 해야지요. 하지만 반칙 같은 건 안 하고, 남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머리 싸매고 쓰러지는 짓도 안 하고, 동료끼리 서로 돕고, 또 상대방까지 배려해 주면서, 깨끗한 매너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경쟁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겨도 좋고 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의 싸움에서는 늘 이겨야 됩니다. 악의 세력, 곧 마귀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자연스럽지만 졌을 때도 최선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패배 또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졌다고 죄를 짓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겼해도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면 영의 싸움에서는 진 겁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때도 질 때도 마귀는 영의 싸움에서 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잘 알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운동을 하면 나, 동료 선수, 상대 팀 선수 말고 또 고려할 대상이 바로 구경하는 사람들, 팬이지요. 마귀는 내 속에도 있고, 동료 선수 속에도 있고, 상대 팀 속에도 있고, 팬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작용하는 마귀를 제대로 발견해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을 보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 이겨라, 상대편 져라. 다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싸움 대상은 언제나 마귀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 좋아합니다. 지면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흥분한 팬이 선수를 쏘아 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기 결과로 도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기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길 때 거기 담겨 있는 죄악을 함께 즐깁니다. 실수를 즐기는 건 그래도 사람이니까 봐줄 만합니다. 그런데 실수만 즐기니까? 반칙도 실력이라 합니다. 심판 잘 못 만나면 아무리 잘 해도 못 이깁니다. 판정시비에 뒤로 돈도 왔다갔다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모두가 그걸 즐깁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신난다 하며 즐기고 불리할 때는 욕을 하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멋진 매너를 보여주면 좋아하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멋진 기록을 가진 차범근도 너무 매너가 좋아서 감독도 싫어하고 관객 가운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프로 스포츠를 하면 관중은 불신자가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시합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의 싸움도 잘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하기가 배는 어렵고 그런 점에서 티보우나 린 같은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하기도 바쁘지만 적어도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볼 때는 티보우나 린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의 관점

이기고 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 경쟁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경쟁을 합니다. 교인 수가 몇이나, 선교사를 몇 명이나 후원하느냐, 예배당이 있느냐, 누구 건물이 더 크냐,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걸로 경쟁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경쟁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한 때 스포츠를 꽤 좋아했습니다. 열성 팬까지는 못 되었지만 롯데 자이언츠 경기는 사직구장에 가서 고향을 지르며 응원도 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스포츠를 열심히 안 봅니다. 왜요? 이긴 사람보다 진 사람이 안 땀어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합에도 자주 가 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기면 좋지만 진 팀도 부모들이 볼 때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경기 끝낸 다음 데리러 가서도 웬만하면 이겼는지 졌는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재미있었느냐 하고 물어보고 맙니다.

교회끼리 모여 하는 친선체육대회도 그 자체로 나쁠 건 없습니다. 서로 즐겁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려 이웃 교회랑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모르고 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승한 팀에게는 상도 주거든요. 상 안 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상을 주면 그걸 타려고 지나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적이 되고 다같이 마귀가 됩니다.

싸운다고 친선체육대회를 폐지하는 게 좋으나,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싸운다면 때려 치워야지요. 하지만 친선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친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스포츠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 참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내 속에도 죄가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내 경쟁심을 이용해 싸움을 불러일으키려 하는구나, 저쪽 팀도 주 안의 형제요 자매인데 원수처럼 보게 만드는구나, 그런 걸 잊지만 않으면 참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되었겠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지만 교회 목사, 장로도 다 어려서 우리 교회가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때보다 더 성숙해졌을까 물어보면 그렇다 하는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경쟁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경쟁에 휘말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의 대상은 절대 나랑 경기하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나랑 경쟁하는 내 직장 동료도 우리 가게와 경쟁하는 옆 가게도 우리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오직 하나, 상대방 속에 있는 마귀,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마귀입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나도 마귀의 시험에 안 져야 되겠지만 내 이웃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나도 마귀에게 지는 거지만 상대방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성을 낼 것이니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지요.

프로 스포츠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 누가 이기면 어떻습니까? 영어 유머에 보면 운동경기에서는 하나님도 어느 팀이 이기는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즐기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경쟁심리를 가장 덜 파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스포츠인 만큼 너무 빠지지만 앓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즐길 좋은 취미일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에는 목표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게 목표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기되 바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할 때 이겨도 감사 못 이겨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법 그 자체가 곧 목표입니다. 방법이 바로 영의 싸움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지요? 사랑하면 이깁니다. (권수경 목사)